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긍정 정서와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

신 지 은 최 혜 원 서 은 국[†] 구 재 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과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두 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상한대로, 행복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돈보다 관계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타인 및 사회에의 높은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보였다(연구 1). 이어서 중단자료의 분석 결과(연구 2), 초기 청소년의 행복은 8개월 후의 친사회적 가치관(예, 감사)을 예측하였으며, 이 효과는 기저 수준과 이타심을 통제하고서도 유효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청소년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친사회적 행동(예, 헌혈)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관계를 친사회적 가치관이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행복의 친사회적 기능을 처음으로 고찰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행복, 한국 청소년, 친사회적 가치관, 친사회적 행동

* 본 연구는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802236).

† 교신저자: 서은국,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02-2123-2446, E-mail: esuh@yonsei.ac.kr

같은 한국인이지만, 성인 두 명 중 한 명만이 다시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한다. 또한 같은 한국인이지만, 성인 세 명 중 한 명만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높다고 생각한다(한국갤럽연구소, 2010, 2012). 이처럼 동일한 세상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를 수 있다(Bruner & Goodman, 1947).

개인의 시각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시각과 일치하는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쉽게 기억하며(Srull & Wyer, 1989), 이를 광범위한 행동의 나침반으로 삼기 때문이다(Rokeach, 1973). 이에 대하여 Kelly(1963)는 개인이 각자의 구성개념(personal construct)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것의 차이가 곧 행동의 차이를 이끈다고 설명하였다. 예컨대 타인과 사회에의 신뢰와 소속감이 없을 때 사람들의 이타적 행동은 감소하며(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 & Bartels, 2007),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Frank, Gilovich, & Regan, 1993). 같은 맥락에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더 이타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환경적 특성들(예, 부모의 양육, 인생의 큰 경험, 학교 교육)이 관련되어 있겠지만, 개인의 내적 경험 상태도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목이 마를 때 물은 더 가깝게 보이고, 공포심을 느낄 때 언덕의 경사는 더 가파르게 보인다(Balcetis & Dunning, 2010; Stefanucci, Proffitt, Clore, & Parkh, 2008).

구자영과 서은국(2007)은 긍정적 정서 상태 역시 세상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과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행복의 양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행

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의 양이 정해져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은 내면적 경험을 수준을 넘어 타인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시각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상에 대한 시각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개인의 “행복감”(평균적으로 긍정 정서를 부정 정서에 비해 자주 경험하는 상태; Diener, 1984)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정에 관심을 갖고, 이를 도식(Piaget, 1952), 태도(Olson & Zanna, 1993), 가치(Schwartz, 1994)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타인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포괄적인 시각을 일컬어 친사회적 가치관(prosocial perspectives)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세상에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와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의 가치관은 성인기에 이르면 고착되어 쉽게 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친사회적 가치관을 갖는 것은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필요하며(Erickson, 1968), 이들이 장차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개발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Pittman, Irby, Tolman, Yohalem, & Ferber, 2003).

요컨대,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 그중에서도 성인기로의 이행을 앞둔 고등학생의 행복과 친사회적 가치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한 청소년은 타인과 사회 전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행복하지 않은 청소년과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둘째, 행복은 청소년의 친사회적 가치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셋째, 청소년기의 가치관을 통해 대학생 시기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최근 행복 연구의 큰 전환점은 행복(그중에서도 특히 긍정 정서)을 성취 후에 뒤따르는 보상이라기보다, 오히려 긍정적 결과 자체를 산출하는 원인으로 보는 데 있다(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개인의 행복이 갖는 잠재적 유용성은 점차 거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도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UN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행복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있으며, OECD 역시 최근 국민의 행복을 반영하는 지수(Better Life Index)를 개발하고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 역시 행복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자 노력한다(Diener, Lucas, Schimmack, & Helliwell, 2009).

이와 같은 추세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수렴되며(Oishi, 2011; Diener & Tay, 2012), 사회경쟁력의 원천으로써의 행복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에 와있는가? 한국은 객관적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인다(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y, 2010). 이에 대한 각성으로 최근 정부가 ‘국민 행복 시대’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으며(한국경제신문, 2012),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행복의 사회적 유용성(societal utility)을 밝힌 연구가 많지 않다. 문화에 따라 행복에 대한 태도나 규범이 다르다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Suh, 2000; Suh, Diener, Oishi, & Triandis, 1998),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이루어졌다. Lyubomirsky와 동료들(2005) 역시 문화권에 따른 재검증을 중요한 향후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다행히 최근 한국에서도 행복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행복이 학업 성취를 예측하고(구재선, 서은국, 2012), 자기존중감이나 자기신뢰와 같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며(구재선, 2009), 행복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맺고(구재선, 이아룡, 서은국, 2009), 창의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신민희, 구재선, 2010). 하지만 이 결과들은 개인적 성취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행복이 가지는 사회적 이득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한국에서 나타나는 행복의 친사회적 기능을 처음으로 고찰한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결과들을 집합주의 문화권에서도 재검증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집합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만 큰 긍정 정서의 경험이나 표현에 높은 가치를 두지 않으며(Eid & Diener, 2001), 자기비판(self-criticism)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행복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결과가 한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에는 문화보편적 속성이 있다. 특히 친사회성의 경우 공동체의 조화와 규범이 중시되는 집합주의 문화에서 행복과 높은 관련성을 보일 것이라는 추론 역시 가능하다. 본 연구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진행되었다.

행복의 사회적 유용성

행복은 단지 개인의 경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미국 갤럽연구소는 150개국을 대상으로 한 행복보고서를 통해 지역에 대한 참여 의식과 봉사가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하였다(Gallup, 2012).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의 행복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 우선, 행복한 사람들은 많은 개인적 성취를 통해 사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를테면 행복은 사람들의 건강한 삶과 수명(Diener & Chan, 2011), 경제력(Marks & Fleming,

1999), 창의적 사고(Staw, Sutton, & Pelled, 1994), 직업적 성취(Cropanzano & Wright, 1999), 그리고 친밀한 대인관계(Diener & Seligman, 2002)와 만족스러운 결혼생활(Harker & Keltner, 2001)을 이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 동료, 친구,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과연 직장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사람을 좋은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는 친구 및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좋은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친사회성이 필요하며, 행복한 사람들은 이를 통해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Eisenberg, 1986). 행복한 성인들은 더 많은 금액의 돈을 기부하고, 더 많은 시간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헌혈도 더 자주 한다(Oishi, 2011). 또한 좋은 날씨나 쿠키 등으로 인한 긍정 정서도 도움 행동에 효과가 있다(Cunningham, 1979; Cunningham, Steinberg, & Grev, 1980). 이와 같이 행복과 친사회성의 관계는 비교적 일관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Salovey, Mayer, & Rosenhan, 1991), 기존 연구들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위의 실험 연구에서 나타난 도움 행동들은 다소 인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수한 실험 상황이나 일시적 기분으로 인한 결과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친사회성의 행동적 결과에 치중한 나머지 ‘어떻게’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 연구자들은 행복이 유발하는 타인에의 긍정적인 시각이 친사회적 행동에의 중요한 기제일 가능성을 제안해왔다(Carlson, Chaplin, & Miller, 1988).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행복한 기분에 있을 때 타인을 더 매력적으로 지각하고(Gouaux, 1971), 타인의 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Veenhoven, 1988).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친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행동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

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도, 종단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예, Thoits & Hewitt, 2001), 행복이 친사회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력과 인과 관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일시적 기분이 아닌 개인의 기질적 행복감을 측정하고, 친사회적 가치관이 행동을 유발하는 원동력일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며, 횡단자료와 함께 종단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한 사람이 친사회성을 통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좋은 시민의 덕목

좋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는 신뢰다. 이웃과 공동체를 신뢰할 때 비로소 애착이 형성되고, 이것이 궁극적인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신뢰는 반복적으로 쌓이면 공동체의 암묵적 규칙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Rousseau & McLean Parks, 1993). 실제로 청소년이 이웃 및 사회의 친사회성을 신뢰할수록, 그들의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Jencks & Mayer, 1990). 신뢰의 중요성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널리 설명된 바 있으며(Fukuyama, 2001; Putnam, 1995), 이는 특히 한국처럼 경제 발전을 이룬 사회에서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Inglehart, 1997).

이러한 신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물질주의(돈의 획득과 같은 물질적인 목표를 특히 중요하게 추구하는 동기 또는 태도; Richins & Dawson, 1992)이다. 신뢰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욱 물질을 추구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최근 한 시민 단체가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10억의 돈과 1년의 감옥 생활을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다(홍사단, 2012).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자유마저도 돈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게 팽배해있는 물질주의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물질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사회적 관계를 경시하고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일례로 물질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안녕에 대해 관심을 덜 갖게 하며(Sheldon & Kasser, 1995), 돈을 추구하는 청소년은 이웃과 지역사회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경향을 덜 보인다(Froh, Kashdan, Yurkewicz, Fan, Allen, & Glowacki, 2010).

물질주의와 반대로, 타인 및 사회와의 연결을 촉진시키고 개인의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것으로 감사를 꼽을 수 있다. Froh, Emmons, Card, Bono와 Wilson(2011)은 감사와 물질주의가 각각 청소년의 사회, 정서, 성취적 기능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감사는 친사회적 동기 및 목표와 관련되어 있으며(Froh, Bono, & Emmons, 2010), 친사회적 행동에 수반되는 손실을 감수하게 한다(Bartlett & DeSteno, 2006). 이런 맥락에서 자비심(benevolence)은 감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치 중 하나이다(Bilsky & Schwartz, 1994).

앞서 설명한 신뢰와 감사 그리고 자비심은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시민의 자질이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에 대한 애착이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처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갖는 소속감과 책임감 등을 일컬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한다(McMillan & Chavis, 1986). 예를 들어,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와 같은 신념이 이에 해당한다.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참여를 이끈다는 점에서 시민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높은 신뢰, 감사, 자비심, 공동체 의식, 그리고 낮은 물질주의를 좋은 사회의 밑거름이 되는 친사회적 덕목으로 선정하고, 행복이 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청소년의 행복

지난 30여 년간 이루어진 행복 연구는 대부분 성인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 행복을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보게 됨에 따라, 예방적이고 발달적인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 행복의 현황과(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이미리, 2003; 차경호, 김명소, 2002),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연화, 2010; 김지윤, 이동귀, 2012; 김청송, 2009; 김홍순, 송민경, 김청송, 2012; 류시영, 강방훈, 2012; 박병선, 배성우, 2012; 박영신, 김의철, 2009; 장휘숙, 2010; 전경숙, 정태연, 2009)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반면 청소년의 행복이 산출하는 결과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없어서, 왜 청소년의 행복이 중요한가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는 학업 성취(구재선, 서은국, 2012)와 사회적 관계(구재선, 이아롱, 서은국, 2009)에 대한 두 개의 연구만이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시기의 행복은 4년 후의 학업 성취를 예측할 수 있으며,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행복은 4개월 후의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과 관련된다. 국외에서는 보다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역시 주로 건강과 같은 개인 내 변인(Hoyt, Chase-Lansdale, McDade, & Adam, 2012)이나 학업 성취 및 참여도와 같은 학교 관련 변인들(Gilman & Huebner, 2006; Suldo & Huebner, 2006), 그리고 교우 및 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대인간 변인(Ben-Zur, 2003; Manning & Lamb, 2003; Proctor, Linley, & Maltby, 2010)에 치중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생활에의 적응이나 교우 및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는 좋은 시민이 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좋은 시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과 가정 및 학교를 모두 포함하

는 거시체계(Bronfenbrenner, 1979)에 대한 친사회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이 타인,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참가자로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인 기로의 이행을 앞두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경쟁과 학업의 무게 때문에 행복의 중요성이 가장 간과되고 있는 집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연구 1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를 통해 행복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친사회적 가치관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행복한 청소년은 돈과 관계 중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까, 행복한 청소년은 타인과 사회를 얼마나 신뢰할까, 행복한 청소년은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어서 연구 2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행복이 이후의 친사회적 가치관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친사회적 가치관이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행복이 지닌 친사회적 기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장기적이고 인과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인위적인 실험 환경이 아닌 청소년의 실제 삶을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행복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친사회적 가치관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2008)에서 실시한 국제 청소년 가치관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행복과 이들의 인생관(관계 vs. 돈), 신뢰,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국제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8)에서 한국 청소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선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두 달간 실시되었다. 교육통계연보를 표집 틀로 하여 3개 학년이 모두 있는 학교를 선정하되, 제주도 지역 학교, 특성화 중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일반계 고등학생 총 722명(남 334명, 여 38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55명(35.3%), 2학년 262명(36.3%), 3학년 205명(28.4%)이었다.

측정 도구

고등학생의 행복과 친사회적 가치관을 측정했으며, 모든 척도는 4점 Likert 척도였다. 보편적으로 Likert 척도의 점수가 클수록 해당 경향성이 높다고 해석되지만, 국제 청소년 가치관 조사(2008)의 설문지 구성은 반대로 되어 있다. 즉, Likert 척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경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높은 점수가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도록 점수를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행복 척도

행복은 삶의 만족도를 묻는 1개 문항(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과 현재의 행복감을 묻는 1개 문항(나는 지금 행복하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을 통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문항의 평균값을 개인의 행복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가치관 척도

친사회적 가치관에는 인생관, 신뢰, 공동체의식을 포함하였다. 첫째, 특정 가치를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묻는 11개 문항 중 관계에 해당하는 4문항과 돈에 해당하는 1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관계를 묻는 4문항은 가족, 동성 친구, 이성 친구, 이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분석 결과 단일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나(설명변량=42.83%, Cronbach's α =.54), 본 연구에서는 4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모두 4점 척도(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4점=매우 중요하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치를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신뢰는 다양한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혈연관계(예, 부모, 조부모 등) 및 학원 선생님 등을 제외한 보편적인 사회적 관계 5문항(예, 친구, 선후배, 이웃, 학교 선생님, 대통령)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평균값을 전반적인 신뢰 점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공동체 의식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

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묻는 5문항(예,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과 및 논의

연구 1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이 친사회적 가치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변인들(성별, 가정 경제 수준, 학업 성취, 부모의 최종학력)을 통제한 부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청소년의 행복과 인생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정도,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공동체 의식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인생에서 돈을 중시하는 정도와는

표 1. 행복과 친사회적 가치관 간 부분 상관계수

변인명	부분 상관계수 (Partial r)
인생관: 관계_중요도	.155***
인생관: 돈_중요도	-.188***
신뢰	.253***
공동체 의식	.271***
-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177***
-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345***
-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082*
-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107**
-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124**

주. 청소년의 성별, 가정 경제 수준, 학업 성취, 부모의 최종학력을 통제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행복과 그들의 친사회적 가치관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인생에서 돈과 같은 수단적이고 외재적인 가치는 덜 추구하고, 관계와 같은 내재적 가치는 더 중시하며, 타인에의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행복한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높은 소속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행복한 사람들이 타인을 더 신뢰하고, 물질주의와 같은 가치관을 덜 가지며,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Lyubomirsky et al., 2005).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가 친사회성과 관련된 성격(예, 이타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자들은 친사회적 행동이 유전적 성향에 기초한다고 주장했으며, 친사회적 행동이 성격 기질의 한 부분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Graziano & Eisenberg, 1997).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행복과 친사회적 가치관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즉, 행복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는 이 결과가 성인기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에 연구 2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종단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성격과 기저 수준을 통제하고서도 행복이 친사회적 가치관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2

연구 1에서 행복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친사회적 가치관 전반에 걸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 2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 1을 보완 및 확장하였다. 첫째, 연구 1에서 행복을 단편적으로 측정했던 것을 보완하고자, 행복의 정서적 요소를 세분화한 척도(Scale of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SPANE; Diener, Wirtz, Tov, Kim-Prieto, Choi, Oishi, & Biswas-Diener, 2009)를 사용하였다. 행복은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이지만(Diener, 1984), 많은 연구자들이 그중에서도 특히 긍정 정서를 행복의 핵심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Fredrickson, 2001; Lyubomirsky et al., 2005). 또한 이 척도는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개인의 기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구 1의 결과가 일시적인 기분으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연구 1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개인의 성격, 특히 친사회성과 관련된 이타심(altruism)을 통제함으로써 행복의 고유한 설명력을 보고자하였다. 셋째, 행복이 친사회적 가치관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종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행복의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도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시기의 친사회적 행동을 추가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친사회적 가치관이 매개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서울과 대전 3개 고등학교 9개 학급(문과 4학급, 이과 5학급)에서 종단연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특히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적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4차례(1차시기: 2010년 3월, 2차시기: 2010년 9월, 3차시기: 2010년 11월, 4차시기: 2011년 10월)

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시기 242명(남자 134명, 여자 108명)의 자료를 기준점으로 삼았고, 가설과 관련된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3차시기(1차시기로부터 8개월 후)에 참여한 230명(남자 125명, 여자 105명)과 4차시기(1차시기로부터 1년 7개월 후)에 참여한 144명(남자 80명, 여자 64명)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변인

1차 설문에서는 행복(긍정 정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경제 수준)과 학업 성취, 그리고 통제를 위한 이타적 성격과 기저선상의 친사회적 가치관(인생관, 감사)을 측정했다. 이어서 3차 설문에서는 인생관, 신뢰, 감사, 그리고 물질주의를 측정했으며, 4차 설문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했다.

행복 척도

본 연구는 행복의 정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Diener와 그의 동료들(2009)의 긍정/부정 정서 경험 척도(SPANE)를 사용하여 긍정 정서 경험을 측정하였다. 긍정 정서 경험은 총 6문항(행복한, 긍정적인, 좋은, 기쁜, 만족스러운, 유쾌한)에 대해 지난 한 달 동안 이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를 7점 척도(1=전혀 느끼지 않았다, 7=항상 느꼈다)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6문항의 평균값을 행복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1차, 3차, 4차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61, .910, .889 수준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친사회적 가치관 척도

청소년의 친사회적 가치관은 인생관, 신뢰, 감사, 물질주의(역)를 포함하였다. 첫째, 다양한 가치를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wartz(1994)의 가치 척도 중 자비심(benevolence)과 권력(power)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정직/남을 도움”, “권력/부”의 문항을 제

시하고, 이러한 항목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7점=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치를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신뢰는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묻는 단일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 1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연구 2에서는 “비 오는 날 어느 가게에서 우산이 없는 손님들을 위해 20개의 우산을 나눠주고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20개 중 몇 개의 우산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뢰를 측정하였다. 돌아오는 우산 개수가 많을 것이라고 응답할수록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물질의 획득과 소유에 부여하는 가치인 물질주의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참가자들은 인생에 있어 성공을 추구하게 하는 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 원동력인지 7점 척도(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7점=매우 중요하다)로 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돈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감사한 일이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물어보았다. 7점 척도(-3=거의 없다, 0, +3=매우 많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감사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행동 척도

친사회적 행동은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를 묻는 6 문항(기부, 봉사활동, 자리양보, 뒷사람 문 잡아주기, 어려운 사람 돕기, 헌혈)으로 측정하였다. 문항들은 4점 척도(1=전혀 하지 않는다, 4=자주 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

으며, 신뢰도는 .681이었다.

통제변인

행복의 고유한 설명력을 보기 위해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과 관련이 높다고 여겨지는 개인의 성격 중 이타심(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한다)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절차

본 연구에서는 1차부터 4차시기까지 1년 7개월 동안 실시된 종단자료를 통해 연구 1에서 나타난 행복과 친사회성의 관계가 재검증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의 행복과 8개월 뒤인 3차시기의 친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1년 7개월 뒤인 4차시기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부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차시기 기저선과 이타심을 통제한 뒤에도 행복이 친사회적 가치관을 예측할 수 있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시기의 행복이 4차시기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친사회적 가치관이 하나의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결과 및 논의

행복과 친사회성의 관계

먼저 청소년의 행복과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의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연구 1의 결과를 재검증했다. 앞서 연구 1에서 가정 경제 수준 및 학업 성취 등을 통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 2에서도 성별, 가정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지난 학기 전교 석차를 통제한 부분 상관 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

은 청소년일수록 돈과 같은 물질적인 목표를 덜 가지고, 학업 성취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타인 및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상대로 1차시기 행복과 1, 3차시기의 자비심(정직/남을 도움) 인생관, 감사, 신뢰(3차만), 그리고 4차시기의 친사회적 행동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 또한 1차시기의 행복은 3차시기의 권력/부 인생관 및 물질주의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은 1차시기에 행복할수록 3차시기에 타인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정직하고 남을 돕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행복하지 않을수록 인생에서 권력과 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성공을 추구함에 있어 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차시기에 행복한 청소년은 4차시기에 대학생이 되어서 친사회적 행동을 더 자주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 수준과 학업 성취를 모두 통제하고서도 나타난 행복과 측정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관은

표 2. 1차시기 행복과 3차 및 4차시기의 친사회성 변인들 간의 부분상관계수

	변인명	부분 상관계수 (Partial r)
T1	이타심	.243**
	인생관: 자비심(정직/남을 도움)	.219**
	인생관: 권력/부	-.080
	감사	.402***
T3	자비심(정직/남을 도움)	.253**
	권력/부	-.201**
	감사	.336***
	신뢰	.338***
T4	물질주의	-.165*
	친사회적 행동	.382***

주. 청소년의 성별, 경제 수준, 학업 성취를 통제한 것임.

T1= 1차시기, T3= 3차시기, T4= 4차시기.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이 돈이나 좋은 성적으로 인해 친사회적인 가치관과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행복과 친사회성의 증가

1차시기의 행복이 8개월 후 친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시기의 친사회적 가치관은 앞서 살펴본 경제 수준이나 학업 성취뿐 아니라, 1차시기의 기저 수준 및 이타적 성격과도 관련이 높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했을 때에도 1차시기의 긍정 정서가 3차시기의 친사회적 가치관에 고유한 설명력을 갖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3차시기의 감사는 1차시기의 감사와 이타심에 의해서 35.5% 설명되었고, 3단계에서 긍정 정서를 추가했을 때 설명 변량은 37.5%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Delta R^2 =$

.019, $p < .01$).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Emmons & McCullough, 2003)을 밝히는 데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도리어 타인에 대해 더 감사함을 느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롭다.

이와 같은 행복의 결과는 자비심(정직/남을 도움) 인생관과 신뢰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3차시기 자비심에 대한 설명 변량은 1차시기 자비심을 투입한 1단계에서 40.3%, 2단계에서 이타심을 추가했을 때 43.5%로 3.2% 증가했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 1차시기 긍정 정서를 추가했을 때 44.4%로 유의하게 증가했다($\Delta R^2 = .010$, $p < .05$). 또한 3차시기 신뢰는 1단계에서 통제변인인 이타심을 투입했을 때 2.2%를 설명하였으나, 다음 단계에서 1차시기 긍정 정서를 추가 투입했을 때 설명력이 8.8%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분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Delta R^2 = .066$, $p < .001$, 1차시기 신뢰는 측정하지 않았

표 3. 행복이 8개월 후의 감사, 자비심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u>종속변인: T3 감사</u>									
T1 감사	0.533	0.048	.591***	0.5	0.054	.555***	0.449	0.056	.498***
T1 이타심				0.083	0.059	0.084	0.08	0.058	0.081
T1 긍정 정서							0.202	0.077	.150**
	$R^2 = .350$, $\Delta R^2 = .350$ ***			$R^2 = .355$, $\Delta R^2 = .006$ ns			$R^2 = .375$, $\Delta R^2 = .019$ **		
예측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u>종속변인: T3 인생관: 자비심(정직, 남을 도움)</u>									
T1 인생관: 자비심	0.595	0.048	.635***	0.463	0.06	.493***	0.447	0.06	.476***
T1 이타심				0.21	0.059	.228***	0.202	0.058	.219**
T1 긍정 정서							0.127	0.064	.101*
	$R^2 = .403$, $\Delta R^2 = .403$ ***			$R^2 = .435$, $\Delta R^2 = .032$ ***			$R^2 = .444$, $\Delta R^2 = .010$ *		

주. * $p < .05$, ** $p < .01$, *** $p < .001$.

음). 그러나 권력/부 인생관과 물질주의는 이타심과 1차시기의 기저선을 통제하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치관에 대한 행복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더 나아가 친사회적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초기 긍정 정서가 1년 7개월 후 대학생 시기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4와 같이, 1단계에서 1차시기에 측정된 이타심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친사회적 행동은 이타심에 의해 13.2% 설명되었고, 2차시기에 긍정 정서를 투입했을 때 설명 변량은 22.3%로 증가하여, 1단계에 비해 9.1%의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Delta R^2 = .091, p < .001$). 즉, 행복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타인과 사회를 더 신뢰하고 이에 감사하도록 하며, 정직하고 남을 돕는 가치를 중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친사회적 행동을 더 자주하도록 이끌었다.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성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이 친사회적 행동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친사회적 가치관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앞의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했던 변인을 대상으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

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치관은 변인 자체의 속성상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와 4차시기의 측정간격이 9개월로 짧았던 점을 고려하여 1차시기의 친사회적 가치관을 매개변인으로 선택하였다.

표 5와 같이, 감사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긍정 정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인인 것으로 나타나($\beta = .397, p < .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긍정 정서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385, p < .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였다. 끝으로, 독립변인인 긍정 정서에 매개변수인 감사를 추가한 회귀분석에서 긍정 정서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한($\beta = .244, p < .001$) 것으로 볼 때, 긍정 정서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감사가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감사의 부분 매개효과는 .141(Sobel $z = 3.23, p < .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비심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매개효과는 .071(Sobel $z = 2.44, p < .05$)로 유의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의 행복은 이후의 친사회적 가치관과 행동에 기여한다. 그리

표 4. 고3 행복이 대학 1년 때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B	SE	β	R^2	ΔR^2
종속변인: T4 친사회적 행동					
단계1					
T1 이타심	0.134	0.029	.363***	0.132	.132***
단계2					
T1 이타심	0.111	0.028	.302***	0.223	.091***
T1 긍정 정서	0.154	0.038	.308***		

주. 모든 예측변인은 1차시기(고3) 측정변인임.

*** $p < .001$.

표 5. 고 3 행복과 대학 1년 때의 친사회적 행동에서 친사회적 가치관의 매개효과

	B	β	R ²	F
1단계: T1 긍정 정서 → T1 감사	0.596	.397***	0.158	44.680***
2단계: T1 긍정 정서 → T4 친사회적 행동	0.172	.385***	0.148	22.732***
3단계: 1) T1 긍정 정서 → T4 친사회적 행동	0.121	.244**	0.209	18.509***
2) T1 감사 → T4 친사회적 행동	0.096	.302***		
4단계: 간접효과 (총효과-직접효과)		.141***		
	B	β	R ²	F
1단계: T1 긍정 정서 → T1 자비심	0.304	.222**	0.049	12.396**
2단계: T1 긍정 정서 → T4 친사회적 행동	0.172	.385***	0.148	22.732***
3단계: 1) T1 긍정 정서 → T4 친사회적 행동	0.141	.314***	0.206	16.831***
2) T1 자비심 → T4 친사회적 행동	0.087	.251**		
4단계: 간접효과 (총효과-직접효과)		.071*		

주. T3에 측정된 감사의 매개효과는 .083(Sobel z = 2.06, p < .05)로 유의했으며, 자비심의 매개효과는 .045(Sobel z = 0.37, p = 0.71)로 유의하지 않았음.

*p < .05, **p < .01, ***p < .001.

고 감사와 자비심과 같은 친사회적 가치관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행복과 친사회성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행복의 효과가 가치관의 기저 수준이나 이타심을 통제하고서도 유효할 만큼 강력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합논의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절의 원시 공동체에서부터 현대 국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늘 크고 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다. 따라서 우리는 풍요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자하는 보편적 욕구를 가진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사회는 좋은 시민을 필요로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행복한 사람이 좋은 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직간접적으로 제안해왔으

며, 행복의 다양한 유용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Lyubomirsky et al., 2005).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복 연구들은 주로 성인을 통해 청소년을,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권을 통해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관심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가 이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거의 없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행복의 사회적 가치를 검토하였으며, 행복한 청소년이 친사회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한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인생에 있어 돈과 권력은 덜 추구하는 반면, 관계는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높은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 분석의 결과 고3시기의 행복은 8개월 후의 신뢰, 감

사, 자비심과 1년 7개월 후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했다. 이는 행복한 사람이 더 친사회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Isen, 1987; Krueger, Hicks, & McGue, 2001)이 집합주의 문화인 한국의 청소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특히, 초기의 기저 수준과 이타심을 통제한 후에도 행복이 친사회성을 예측한다는 결과는 지적 능력 못지않게 행복이 청소년기에 경험하고 개발해야 할 중요한 역량의 하나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의 일부가 행복에서 비롯된다는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연구에서 사용되던 감사는(Emmons & McCullough, 2003) 행복을 증진시키는 수단일 뿐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어떤 가치나 목표를 왜 추구하느냐’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내/외재적 가치와 행복의 관련성(Niemiec, Ryan, & Deci, 2009)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내재적 가치를 통한 심리적 욕구의 충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요인인 동시에, 행복이 유발하는 긍정적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돈과 같은 외재적 가치를 쫓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경시하게 만들며(Vohs, Mead, & Goode, 2006, 2008),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감을 저하시킨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물질주의를 완화시키는 방법의 하나가 행복일 가능성과 함께, 일상의 잦은 긍정 정서가 인생의 커다란 방향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그것을 유발하는 기제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그리고 행복에서 비롯된 타인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 시각(특히 자비심 인생관과 감사)이 미래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주장한 정서 합치 효과(mood congruency effect)를 잘 뒷받침한다(Forgas, 1995; Jones & George, 1998). 나아가 본 연구는 행복의 효과가 의사결정 및 판단뿐 아니

라 근본적인 가치관에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특정 대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새롭게 보여준다.

긍정적 시각은 대상이 나 자신일 때에는 자존감, 상대방일 때에는 만족스러운 관계, 직장일 때에는 낮은 이직률과 직무성과 등 삶의 다양한 원동력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좋은 시민의 기능을 쉽고, 일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를 행복한 사람이 항상 타인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조건에서는 긍정 정서가 타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Bless, Schwarz, & Wieland, 1996). Lount(2010) 역시 긍정 정서와 신뢰의 관계가 상대의 신뢰성에 대한 단서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행복의 친사회적 효과는 맹목적인 신뢰나 낙관주의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셋째, 본 연구는 미래 사회의 시민인 청소년에 주목함으로써 다양한 개입에의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낮은 행복감이 우리 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사회에의 신뢰와 협력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국가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OECD 하위 수준이다. 일등제일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흔히 도덕성이 경쟁력과 동일 선상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도덕성은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이며, 동일한 조건에서 사회의 신뢰도가 10%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0.8% 하락한다고 알려져 있다(Knack & Keefer, 1997).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이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의 비도덕적 행동은 사회적인 전염을 통

해 확산될 수 있다(Gino, Ayal, & Ariely, 2009). 이에 우리 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외부적 교육(예, 부모의 양육, 보이스카우트, 교과서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도덕성 연구와 교육은 사고 및 추론과 같은 인지적 능력이나(Eisenberg, Pasternack, Cameron, & Tryon, 1984), 죄책감이나 수치심(Tangney & Tracy, 2012) 또는 혐오감(Schnall, Haidt, Clore, & Jordan, 2007)과 같은 일부 부정 정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잦은 긍정 정서의 중요성을 재조명 하고 있다. 요컨대, 행복은 쉽고 효과적인 내재적 도덕 교육의 한 방법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단연구는 시간차를 두고 측정함으로써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제 3의 변인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이타심과 초기 친사회적 가치관을 통제하였으나, 이 결과를 인과관계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행복의 정서적 요인은 긍정 정서뿐 아니라 부정 정서도 포함하지만(Diener, 1984), 본 연구는 이 중 긍정 정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부정 정서도 특정 상황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Carlson & Miller, 1987),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 정서의 영향력에 한해서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의 다른 요인들(삶의 만족도나 부정 정서)이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친사회적 행동은 자기보고로 이루어졌다. 자기 보고된 친사회적 행동은 지인보고 및 실제 측정치와 유의미한 높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행동을 반영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행복한 사람들의 긍정적 해석 경향성이 자신의 친사회적 행동의 인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 고양적 편향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비춰지려는 욕구 자체도 행복, 그리고 행복한 사람과 관련된 특징의 하나일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Diener, 1994).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친사회적 가치관의 매개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측정 시기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는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있어 가치관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도덕적 자기개념을 들 수 있다. 과거의 반복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형성된 자기개념은 이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미래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Gino & Desai, 2012).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위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행복이 가치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친사회성이 행복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Layous, Nelson, Oberle, Schonert-Reichl, & Lyubomirsky, 2012)인 동시에 결과물이라는 행복의 선순환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행복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집합주의 문화에서 재검증했다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청소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가 왜 청소년의 행복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구자영, 서은국 (2007).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1-19.
- 구재선 (2009). 행복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165-179.
- 구재선, 서은국 (2012). 행복은 4년 후 학업성취를 예측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37-52.
- 구재선, 이아롱, 서은국 (2009). 행복의 사회적 기능: 행복한 사람이 인기가 있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 29-47.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 1-33.
- 김연화 (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 287-307.
- 김지윤, 이동귀 (2012). 여고생의 가족관계 및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자기불일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조절 역할. 상담학연구, 13, 1443-1460.
- 김청송 (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 649-665.
- 김홍순, 송미경, 김청송 (2012). 청소년의 행복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 253-270.
- 류시영, 강방훈 (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3, 27-50.
- 박병선, 배성우 (2012).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4, 215-238.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 399-429.
- 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물질주의와 인간관계 경시의 심리적 원인: 낮은 일반적 신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23-36.
- 신민희, 구재선 (2010). 행복과 창의력의 관계: 행복한 사람이 더 창의적이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 37-51.
- 이미리 (2003). 청소년기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 193-209.
- 장휘숙 (2010).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소년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 1-17.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 133-153.
- 차경호, 김명소 (2002). 개별발표: 발달;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특성.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3-209.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0). 미래한국리포트 조사결과 집계표.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2).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라, 싫어하는 나라,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 한국경제신문 (2012. 12. 30). 대한민국 행복 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홍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2012). 청소년 정직지수.
- Balcetis, E., & Dunning, D. (2010). Wishful seeing: Desired objects are seen as closer. *Psychological Science, 21*, 147-152.
- Bartlett, M. Y., & DeSteno, D. (2006). Gratitude and prosocial behavior helping when it costs you. *Psychological Science, 17*, 319-32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n-Zur, H. (2003). Happy adolescents: The link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internal resources, and parent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 67-79.
- Bilsky, W., & Schwartz, S. H. (1994). Values and personal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8, 163-181.
- Bless, H., Schwarz, N., & Wieland, R. (1996). Mood and the impact of category membership and individuating in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 935-959.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ner, J. S., & Goodman, C. C. (1947). Value and need as organizing factors in percep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2, 33-44.
- Carlson, M., Chaplin, V., & Miller, N. (1988). Positive mood and helping behavior: A test of six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211-229.
- Carlson, M., & Miller, N. (1987). Expla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mood and helping. *Psychological Bulletin*, 102, 91-108.
- Cropanzano, R., & Wright, T. A. (1999). A 5-year study of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ell-being and job performance.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51, 252.
- Cunningham, M. R. (1979). Weather, mood, and helping behavior: Quasi experiments with the sunshine Samarit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947-1956.
- Cunningham, M. R., Steinberg, J., & Grev, R. (1980). Wanting to and having to help: Separate motivations for positive mood and guilt-induce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181-192.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3,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 Chan, M. Y. (2011). Happy people live longer: Subjective well-being contributes to health and longevity.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Being*, 3, 1-43.
- Diener, E., Lucas, R., Schimmack, U., & Helliwell, J. F. (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 & Seligman, M. E. P.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 81-84.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Seoul: Korean Psychological Society*, 1-23.
- Diener, E., & Tay, L. (2012). A scientific review of the remarkable benefits of happiness for successful and healthy living. *Report of the Well-Being Working Group, Royal Government of Bhutan: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ell-Being and Happiness: A New Development Paradigm*, UN, NY.
-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Oishi, S., & Biswas-Diener, R. (2009). New measures of well-being: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 247-266.
- Eid, M., & Diener, E. (2001). Norms for experiencing emotions in different cultures: Inter-and intran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869-885.
-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Eisenberg, N., Pasternack, J. F., Cameron, E., & Tryon, K. (1984). The relation of quantity and

- mode of prosocial behavior to moral cognitions and social style. *Child Development*, 55, 1479-1485.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377-389.
-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orgas, J. P. (1995). Mood and judgment: The affect infusion model (AIM). *Psychological Bulletin*, 117, 39-66.
- Frank, R. H., Gilovich, T., & Regan, D. T. (1993). Does studying economics inhibit cooper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 159-171.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 218-226.
- Froh, J. J., Bono, G., & Emmons, R. (2010). Being grateful is beyond good manners: Gratitude and motivation to contribute to society among early adolescents. *Motivation and Emotion*, 34, 144-157.
- Froh, J. J., Emmons, R. A., Card, N. A., Bono, G., & Wilson, J. A. (2011). Gratitude and the reduced costs of materialism in adolescen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 289-302.
- Froh, J. J., Kashdan, T. B., Yurkewicz, C., Fan, J., Allen, J., & Glowacki, J. (2010). The benefits of passion and absorption in activities: Engaged living in adolescent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 311-332.
- Fukuyama, F. (2001).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22, 7-20.
- Gallup. (2012). Gallup World Poll (<http://eu.gallup.com/poll/118471/world-poll.aspx>).
- Gilman, R.,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 311-319.
- Gino, F., Ayal, S., & Ariely, D. (2009). Contagion and differentiation in unethical behavior: The effect of one bad apple on the barrel. *Psychological Science*, 20, 393-398.
- Gino, F., & Desai, S. D. (2012). Memory lane and morality: How childhood memories promote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 743-758.
- Gouaux, C. (1971). Induced affective states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37-43.
- Graziano, W. G., & Eisenberg, N. H. (1997). Agreeableness: A dimension of personality. In R. Hogan, J. Johnson, & S. Brigg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795-824).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Harker, L., & Keltner, D. (2001). Expressions of positive emotion in women's college yearbook pict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sonality and life outcomes across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112-124.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oyt, L. T., Chase-Lansdale, P. L., McDade, T. W., & Adam, E. K. (2012). Positive youth, healthy adults: Does positive well-being in adolescence predict better perceived health and fewer risky health behavior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0, 66-73.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sen, A. M. (1987). Positive affect, cognitive processes

- and social behavio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203-253.
- Jencks, C., & Mayer, S. E. (1990). The social consequences of growing up in a poor neighborhood: Inner-city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In L. E. Lynn, Jr. & M. G. H. McGeary (Eds.), *Inner city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pp. 111-186).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Jones, G. R., & George, J. M. (1998). The experience and evolution of trust: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team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31-546.
- Kasser, T. (2002). *The high price of materialism*. Cambridge, MA: MIT Press.
- Kelly, G. A. (1963). *A theory of personality: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Y: Norton.
- Knack, S., &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 1251-1288.
- Krueger, R. F., Hicks, B. M., & McGue, M. (2001). Altruism and antisocial behavior: Independent tendencies, unique personality correlates, distinct etiologies. *Psychological Science*, 12, 397-402.
- Layous, K., Nelson, S. K., Oberle, E., Schonert-Reichl, K. A., & Lyubomirsky, S. (2012). Kindness counts: Prompting prosocial behavior in preadolescents boosts peer acceptance and well-being. *PLoS One*, e51380.
- Lount, R. B. Jr. (2010). The impact of positive mood on trust in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 420-433.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803-855.
- Manning, W. D., & Lamb, K. A. (2003). Adolescent well-being in cohabiting, married, and single 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876-893.
- Marks, G. N., & Fleming, N. (1999). Influences and consequences of well-being among Australian young people: 1980 - 1995.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301-323.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Niemiec, C. P., Ryan, R. M., & Deci, E. L. (2009). The path taken: Consequences of attaining intrinsic and extrinsic aspirations in post-college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291-306.
- OECD (2012).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 Oishi, S. (2012). *The psychological wealth of nations: Do happy people make a happy society*. Hoboken, NJ: Wiley-Blackwell.
- Olson, J. M., & Zanna, M. P. (1993).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17-154.
- Piaget, J. (1952).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Pittman, K., Irby, M., Tolman, J., Yohalem, N., & Ferber, T. (2003). *Preventing problems, promoting development, encouraging engage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Washington, DC: 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
- Proctor, C., Linley, P. A., & Maltby, J. (2010). Very happy youths: Benefits of very high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8, 519-532.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NY: The Free Press.
- Rousseau, D. M., & McLean Parks, J. (1993). The contract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5, 1-43.
- Salovey, P., Mayer, J. D., & Rosenhan, D. L. (1991). Mood and helping: Mood as a motivator of helping and helping as a regulator of moo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215-237.
- Schnall, S., Haidt, J., Clore, G. L., & Jordan, A. H. (2008). Disgust as embodied moral judg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096-1109.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 19-45.
- Strull, T. K., & Wyer, R. S. (1989). Person memory and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96, 58-83.
- Staw, B. M., Sutton, R. I., & Pelled, L. H. (1994). Employee positive emotion and favorable outcomes at the workplace. *Organization Science*, 5, 51-71.
- Stefanucci, J. K., Proffitt, D. R., Clore, G. L., & Parekh, N. (2008). Skating down a steeper slope: Fear influences the perception of geographical slant. *Perception*, 37, 321-323.
- Suh, E. M. (2000). Self, the hyphen between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63-86). Cambridge, MA: MIT Press.
- Suh, E., Diener, E., Oishi, S., & Triandis, H. C. (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ments across cultures: Emotions versus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82-493.
- Suldo, S. M.,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very happy youth.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 179-203.
- Tangney, J. P., & Tracy, J. L. (2012). Self-conscious emotions. In M.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2nd ed., pp. 446-478). Guilford: New York.
- Thoits, P. A., & Hewitt, L. N. (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115-131.
- Tov, W., & Diener, E. (2008). The well-being of nations: Linking together trust, cooperation, and democracy. In B. A. Sullivan, M. Snyder & J. L. Sullivan (Eds.), *Cooperation: The political psychology of effective human interaction* (pp. 323-342).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56-66.
- Veenhoven, R. (1988). The uti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333-354.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6).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money. *Science*, 314, 1154-1156.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8). Merely activating the concept of money changes personal and interpersonal behavio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 208-212.

1 차원고접수 : 2013. 04. 14.

수정원고접수 : 2013. 05. 29.

최종게재결정 : 2013. 05. 30.

Do Happy Teenagers Become Good Citizens? Positive Affect Builds Prosocial Perspectives and Behaviors

Ji-eun Shin

Hye Won Choi

Eunkook M. Suh

Jaisun Koo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Do happy teenagers become good citizens? In two studies, we examined whether happy teenagers are more likely to endorse prosocial perspectives and behaviors than their less happy peers. As expected, happy teenagers valued relationship more than money, maintained higher levels of trust and a stronger sense of community than unhappy teenagers (Study 1). Results from a longitudinal sample (Study 2) showed that teenagers' happiness predicted their prosocial views (e.g., gratitude) 8 months later, even after controlling for altruism and the initial baseline levels of the predicted variables. Furthermore, happy teenager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prosocial behaviors (e.g., blood donation) when they enrolled in college 19 months later. Prosocial attitudes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happiness and prosocial behaviors.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attempt to understand the prosocial outcomes of happiness among Korean teenagers.

Keywords : happiness, Korean teenager, prosocial perspective, prosocial behavior